

<인공지능이 만들어 가는 현재와 미래 사회> 토론문

이규철(성신여대 사학과)

◎ 인공지능 시대의 역사학 연구

-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사회에서 역사학 연구는 물론 인문학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고민도 함께 확대되고 있음
- 문화콘텐츠/디지털 인문학 등의 학문적 개념이 등장한 것이 벌써 15~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
- 역사학의 위기/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언급이 계속 되면서 나타난 대안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함

◎ 인공지능 시대의 역사학 연구

- 공공역사/디지털 역사학/역사콘텐츠 등 역사학의 방향과 새로운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민과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
- 인공지능은 역사학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됨
- 다만 역사학 연구와 방향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기존과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보이지 못하는 실정임

◎ 인공지능 시대의 역사학 연구

- 공공역사/역사콘텐츠 등으로 제시되는 용어들은 87체제의 고민 속에서 본격화되었던 '역사대중화'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
- 디지털 역사학/디지털 인문학 역시 많은 주목을 받아 왔고 지금도 관심이 유지되고 있지만 기존 역사학 연구 방법론의 범위 안에 있음
- 역사학 연구에서 인공지능 역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임

◎ 인공지능 시대의 역사학 연구

-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금석학이나 관련 분야에서 인간의 연산 능력으로 도달하기 어려웠던 영역에 도움을 줄 것은 분명해 보임
- 하지만 인공지능의 압도적 연산력으로 판독한 문자 등을 통해 새로운 소재를 발견해도 역사학 연구의 방법은 변화가 쉽지 않음
- 연구의 새로운 소재의 발견은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은 곳에 있음

◎ 인공지능 시대의 역사학 연구

- 연구자 등의 전문가들은 역사자료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기능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온톨로지 기반 검색 결과 등을 확인하고 싶지만 아직은 개발이 필요
- 더욱 중요한 문제는 관련 기능이 실현화 되어도 역사연구자들이 온톨로지 기반 검색 결과의 해석에 대한 훈련이 아직 부족
- 이 부분에서 역사연구자들이 먼저 준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함

◎ 인공지능 시대의 역사학 연구

- 인공지능도 결국 인간이 생산한 자료의 검색과 조합/연산 등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
- 사람들의 우려처럼 인공지능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단계의 도달이 가능할 것인가?
- 역사학자들이 인공지능을 연구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?